

#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1~2개 부처 소폭 개각

###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거론 대통령실 안보 라인 일괄 교체 용산 참모들 총선 출사표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소폭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2차 개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인사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며 "개각 폭과 시기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 결심에 달렸다"고 말했다. 우선 개각 대상은 국방부를 비롯해 1~2개 부처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중장 출신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때 윤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조만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동시 교체되면서 사실상 '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이 이뤄지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유 특보는 과거 입증된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에 높은 기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유경춘 주교 친형이자 전주교 신자로서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바티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개각 일정 등을 고려해 무산됐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형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됐으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가 폐지 예정인 부처인 점, 여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이 개각 시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일정도 개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데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한편, 2차 개각을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의 출사표도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의 차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전희경 정무1·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도 유력한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임상준 환경부·김오진 국토교통부·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 비서관 출신 차관들도 출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전·현직 참모진이 일제히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바이든 옆자리 앉아 90분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국힘 '허위 인터뷰 의혹' 민주 배후설 부각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흥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촉발한 '이념전쟁' 과정에서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다소 신중 모드를 보였지만, 이번 이슈를 고리로 '총공세 모드'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 사건을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까지 발족했다. 3선 유의동 의원이 단장을 맡은 조사단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건 진상 규명 작업에 '여론전'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사건 배후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를 저격한 인터뷰인 만큼, 대선 경쟁자이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혜자라는 논리다. 이에 이미 겹겹의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당 관계자는 1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이 사안을 사전에 알고는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 지형이 여당에 불리하다'며 불멘소리를 내뱉던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이 일부 언론사와 포털,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 문제를 바로잡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언론 개혁' 이슈에도 함께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물론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MBC·JTBC 소속 기자 6명까지 총 8명을 행정 및 정보통신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앞서 당 지도부는 흥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 논란 국면에서는 공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논란이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인터뷰 짜깁기' 지적이 나온데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 '사과 방송'까지 한 만큼, 대야 공세와 언론개혁 '쌍끌이 강공'을 펴기에 충분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민주 로고 바꾼다...총선 앞두고 이미지 쇄신 총력

### 청년층 대상 홍보 SNS 개편도

여야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대표 이미지'를 바꾼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내부적으로 당 공식 로고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이름 중 '국'과 '민'의 자음 'ㄱ', 'ㄴ'을 따서 만든 기존 로고를, 'ㄱ'은 유지하되 '함'의 'ㅎ'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현재의 로고를 확정 한 지 3년 만이다. 빨강으로만 이뤄진 현행 로고와 달리, 검도 중인 새 로고는 빨강, 파랑이 비슷한 비중으로 쓰였다. 태극기 색상을 상징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로고를 새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새 로고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의 배경 현수막을 통해 처음 선보였다. 새 로고 디자인은 당 안팎의 반응을 살펴 최종 확정된 뒤 각종 홍보물, 현수막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당명과 '빨강·파랑·하양'을 혼용하는 당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일찍이 로고를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해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의 로고는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나서 한 달 뒤인 2016년 1월에 만들어졌다. 당 색깔인 푸른색을 중심으로 연두색과 녹색 계

열을 가미했고, 당명의 오른쪽 윗부분에 민주당의 'ㄴ'을 형상화한 깃발을 그려 넣었다. 민주당은 당명은 그대로 둔 채 로고 디자인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 변화를 줄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명의 '더불어'에 '함께한다', '연대'의 의미가 집중되다 보니 개인의 자유와 창의, 주체성 등을 보완할 것 같다"며 "색깔과 디자인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당을 상징하는 색은 여전히 푸른색으로 유지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로고를 만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만큼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구성원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신규 PI는 당 대표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中 영자 관영지 尹대통령-리창 회담 1면 게재

### '한중 관계 중요성' 반영 평가

중국 영자 관영지인 차이나 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회담을 1면에 게재했다. 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차이나 데일리는 8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리 총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계기로 별도로 만나 촬영한 기념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8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의 참석 중 EAS를 포함해 다양한 다자 및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기사에서 리 총리 발언을 인용, "중국어와 한국어 공통의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과 공급망을 양국이 공동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하고, 상호 이익과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지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닌 정부 당국자 외교 활동을 1면에 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테리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망기업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리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